

WorldCat 수록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분석

An Analysis on the Juvenile Books on Korea and Japan in the WorldCat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1997년 발행 책의 서지레코드 분석 |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4.1 소장도서관의 분포 |
|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4.2 언어 및 장르의 분포 |
| 2. 선행 연구 | 4.3 언어와 소장도서관 |
| 3. 한국과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의 분석 | 4.4 실제 보유 도서관 현황 |
| 3.1 서지레코드의 발행연도 분포 | 4.5 주제 분포 |
| 3.2 서지레코드 언어 및 장르 분포 | 5.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WorldCat에 수록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언어, 장르, 주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소장도서관 및 보유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관련 지식 확산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청소년용 책의 서지레코드 및 이들 중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서지 레코드 수가 가장 비슷했던 1997년 발행 책들의 소장도서관 수, 언어, 장르 및 주제표목 분포를 상세히 계량분석 하였다. 한국 관련 책들은 WorldCat 수록 서지레코드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1997년 책은 미국 내 소장 및 보유도서관 수가 적으며, 대부분 한글 전용 텍스트,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수준 책의 과잉, 옛날이야기나 일화 중심 전기서 등 장르와 주제 편향성 등을 보여 '읽을거리'로서 흥미 유발이나 지식 확산의 전망이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books on Korea and Japan in WorldCat and observe the possibility of diffusing knowledge on each country. The distribution of bibliographic records of books published from 1993 through 2012, and especially the books published in 1997, when the numbers of books on both countries were the closest, were analyzed in detail in terms of language, genre, subject headings, and holding libraries. The result shows much fewer bibliographic records of juvenile books on Korea than those of books on Japan, and their growing gap every year. There were also much fewer holding libraries and copies of books on Korea, published in 1997, compared to books on Japan. The texts were mostly written in Korean and in tones set for very young readers. A serious lack of diversity in subjects and genres with the focus on Korean folklores and anecdotal biographies were also observed. Therefore, there seems to be nothing much interesting to read that would help promote the diffusion of knowledge on Korea through libraries around the world.

키워드: 한국 관련 청소년 책, 일본 관련 청소년 책, 지식확산, 도서관 장서 분석, 서지레코드 WorldCat, Juvenile Books on Korea, Juvenile Books on Japan, Knowledge Diffusion, Analysis of Library Collection, Bibliographic Records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5-23,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005]

1. 머리말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OCLC의 WorldCat은 2013년 5월 현재 전 세계 72,000여 개 도서관이 입력한 290,687,111건의 서지레코드와 그에 따른 소장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종합목록이다. WorldCat은 2013년 5월 4일 20억 번째 소장정보 입력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OCLC 2013c).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제공하며 전 세계 도서관의 “집합장서(collective collection)”를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WorldCat(OCLC 2013a)은 OCLC FirstSearch 서비스를 통해 매 1초마다 한 번씩 검색이 이루어지며, 매 4초마다 한 번씩 WorldCat Resource Sharing 서비스를 통해 자원공유 신청을 주고받는다. 또한 회원도서관이 아닌 일반이용자들도 웹 상에 공개된 WorldCat.org를 통해 WorldCat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 도서관 및 일반 이용자들이 공유하는 서지정보원이 된 WorldCat에 수록된 특정한 주제 관련 자료의 서지레코드 분포를 보면 전 세계 도서관에 해당 주제에 관한 지식자원이 현재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된 지식의 확산 가능성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은 WorldCat에 수록된 서지레코드를 통해 단순히 특정한 자료의 서지정보 및 소장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대차 등을 통한 자원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접근 가능성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해당 주제 관련 지식의 확산에 이르는 가능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WorldCat의 한국 및 일본 관련 자료의 서지레코드 분포를 통해 관련 지식의 향후 확산 가능성을 추론하고자 했던 이전 연구(2012)에서 발견한 다음 두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전 세계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자료는 일본 관련 자료와 매체, 장르, 언어의 특성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총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둘째, 특히 한국 관련 청소년 대상 자료는 총수가 적고, 매체 다양성의 결여, 영어 사용 자료 및 소설책의 부족 등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 장서를 통한 한국 관련 지식의 확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WorldCat이 제공하는 차세대 검색 인터페이스의 패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주제 관련 지식 확산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론적으로 다루면서, 한국 및 일본 관련 자료를 넓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연구는 처음부터 WorldCat에 수록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언어, 장르, 주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소장도서관 및 보유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관련 지식 확산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WorldCat에 수록된 서지레코드들 가운데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주제표목 Japan이나 Korea를 포함한 청소년용 책의 서지레코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2013년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다음과 같은 단계로 WorldCat을 검색하였고, 이후 검색된 서지레코드 그룹의 계량분석 및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 (1) WorldCat을 Year: 1993-2012, Audience: Juvenile, Format: Book으로 조건을 제한, SU: Japan과 SU: Korea로 각각 검색.
- (2) 검색 결과 서지레코드들을 주제, 발행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및 장르(소설, 비소설, 전기) 등 패킷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발행연도별로 계량 분석.
- (3) 전체 검색 결과에서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서지 레코드 수가 가장 비슷했던 1997년 발행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227건과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212건을 각각 주제(Topic), 언어 및 장르 등 패킷 속성에 따라 분포 현황 분석, 각 책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 파악, 및 미국의회도서관주제표목(LCSH)의 특성 분석.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WorldCat의 서지레코드이지만, 실질적인 관심과 분석의 대상은 각 서지레코드가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서지레코드와 책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WorldCat에는 2013년 5월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의 72,000여 도서관이 서지 및 소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세 번째 단계에서 1997년에 발행된 책만을 검토할 때는

WorldCat의 최초 가입국이며 가장 많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소장도서관 현황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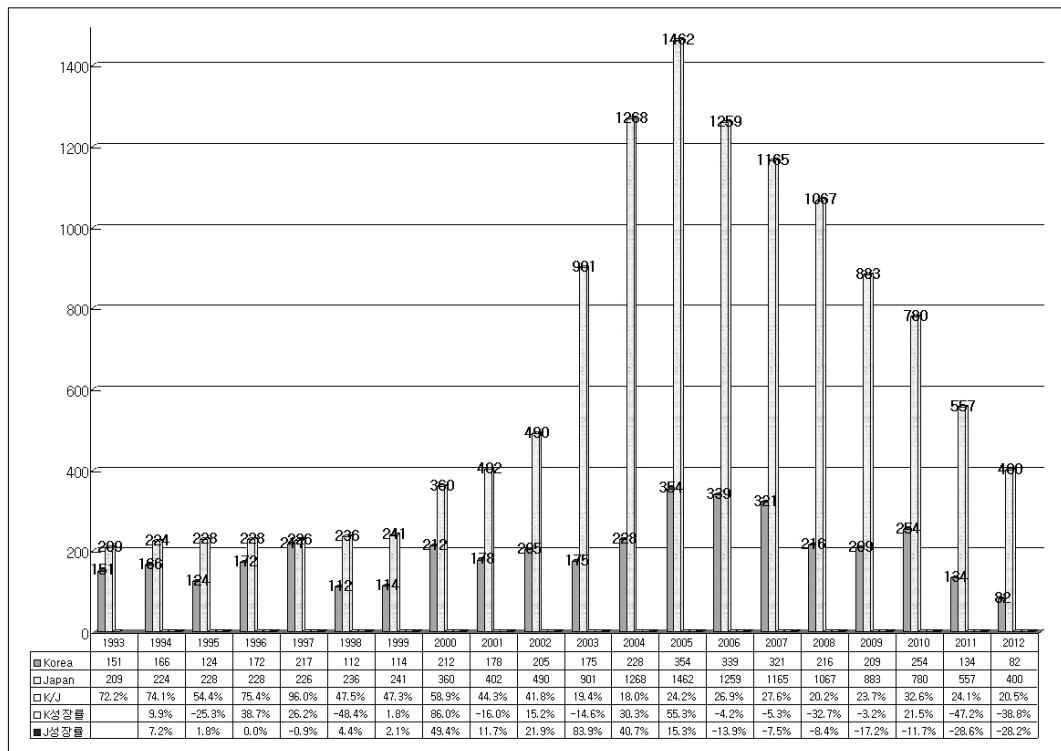
이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도서관 목록이 지식 확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김정현의 연구(2011)를 들 수 있다. 김정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의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한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윤정옥(2012)은 김정현과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 목록이 특정한 주제 관련 지식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WorldCat을 전 세계 도서관의 주제 관련 지식자원 분포 현황의 분석 도구로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Korea, Korean, Japan과 Japanese라는 네 개의 주제 키워드 검색결과를 매체, 장르, 언어 패킷으로 분석하여 전 세계 도서관 소장 한국 관련 지식자원의 규모는 일본 관련 자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특히 청소년 대상 자료는 규모 및 매체, 언어, 장르 등 특성 면에서 일본 관련 자료보다 제한적이며 다양성이 적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이용자 참여 기능에 주목하여 두 건의 서지레코드 사례를 검토하고 이용자 서평 등의 내용이 관련 지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추론하였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도서관 목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고, 목록 이론,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과 OPAC, 이용자의 목록 이용 및 정보 추구 행태 분석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일련의 연구(김정현 2010; 2011; 문지현, 김정현 2009; 2011)는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LCSH)에서 한국, 일본, 중국 관련 표목의 분포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 도서관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앞서 언급한 김정현과 윤정옥의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관 목록 그 자체가 지식확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한국과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의 분석

3.1 서지레코드의 발행연도 분포

〈그림 1〉은 2013년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WorldCat에서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발행된, 주제표목 Japan이나 Korea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책을 검색한 결과로 얻은 서지레코드의 발행연도별 분포를 보여준다. 이것은 WorldCat의 고급검색에서 발행연도(Year: 1993-2012), 이용자수준(Audience: Juvenile), 매체형태(Format: Book)로 조건을 제한하여 주제(SU: Japan, SU: Korea)로 각각 검색한



〈그림 1〉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 분포: 1993년-2012년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SU: Japan을 포함하는 것을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 SU: Korea를 포함하는 것을 한국 관련 서지레코드라고 각각 부르기로 한다.

WorldCat에 수록된 지난 20년 동안 발행된 한국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와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 분포를 보면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총수는 3,963건이고,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의 총수는 12,586건이다. 이 수치로만 비교하면 한국 관련 서지레코드 총수는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 총수의 31.5% 정도이다.

〈그림 1〉의 데이터 테이블의 첫째 행과 두 번째 행은 각각 주제표목에 Korea와 Japan이 포함된 책의 서지레코드 수를 보여준다. 각 발행연도별로 왼쪽 막대는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를, 오른쪽 막대는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를 각각 나타낸다. 분석 대상 첫 해인 1993년 발행된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는 모두 151건,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는 209건이다. 지난 20년 동안 발행된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들 가운데에는 2005년 발행 책의 서지레코드가 354건으로 가장 많고, 2012년 발행 책의 서지레코드가 82건으로 가장 적다. 일본 관련 책도 역시 2005년 발행 책의 서지레코드가 1,462건으로 가장 많지만, 분석 대상 첫 해인 1993년이 209건으로 가장 적다.

데이터 테이블의 세 번째 행(K/J)은 발행연도별 한국 관련 책 대비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분포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 관련 서지레코드는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 대비 1993년 72.2%, 1994년 74.1%, 1995년 54.4%, 1996년 75.4%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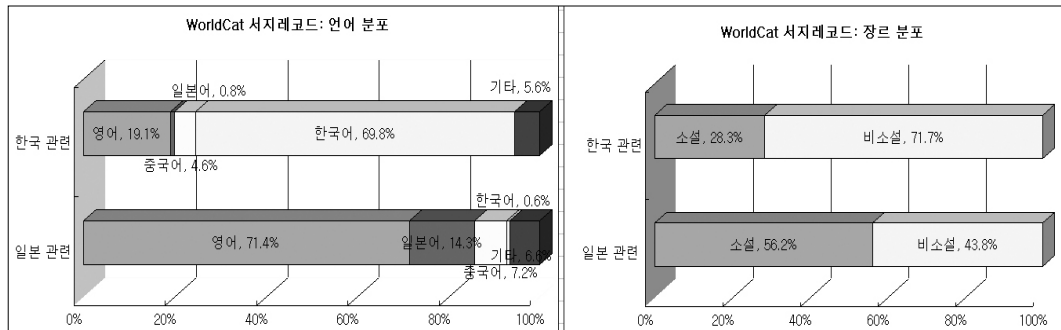
고 1997년 96.0%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20% 안팎 수준이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03년과 2004년으로, 2004년 발행된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는 1,268건, 한국 관련 서지레코드는 228건으로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의 18.0%, 그 전해인 2003년 발행된 일본 관련 서지레코드는 901건, 한국 관련 서지레코드는 175건으로 전자의 19.4%에 이를 뿐이다.

이처럼 WorldCat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 총수는 전 세계 도서관에 일본 관련 책이 한국 관련 책보다 훨씬 더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서지레코드의 외형적 숫자만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WorldCat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특정한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상호대차 등의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건의 서지레코드가 있고, 그것의 기술 대상인 한 권의 책이 어딘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이용자가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지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한국에 비하여 일본 관련 지식의 확산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3.2 서지레코드 언어 및 장르 분포

WorldCat에 수록된 서지레코드로 본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들의 언어 분포는 〈그림 2〉의 왼쪽 도표, 장르 분포는 오른쪽 도표에 각각 나타나 있다.

이 책들의 언어 분포를 보면 한국 관련 책은



〈그림 2〉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언어와 장르 분포: 1993년-2012년

한국어로 된 책들이 가장 많고, 일본 관련 책은 영어로 된 책들이 가장 많다.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3,679건은 모두 25개 언어로 된 책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로 된 책으로 모두 2,568건(69.8%)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704건, 19.1%), 중국어(171건, 4.7%), 베트남어(118건, 3.2%), 일본어(29건, 0.8%), 타이어(19건, 0.5%), 프랑스어(17건, 0.5%), 러시아어(8건, 0.2%), 스페인어(6건, 0.2%), 독일어(5건, 0.1%)의 순이며, 이들 10개 언어가 전체 서지레코드의 90.08%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어, 아랍어, 힌두어 등 나머지 15개 언어가 34건(0.79%)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10,976건은 모두 46개 언어로 된 책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어로 된 책으로 7,833건(71.5%)에 달하여 삼분의 이 이상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어(1,565건, 14.3%), 중국어(786건, 7.2%), 스페인어(356건, 3.2%), 프랑스어(84건, 0.8%), 인도네시아어(70건, 0.6%), 한국어(65건, 0.6%), 베트남어(64건, 0.6%), 말레이어(26건, 0.2%), 러시아어(19건, 0.2%)로

된 책들이다. 이들 10개 언어가 전체 서지레코드의 99.02%를 차지하였고 타갈로그어, 티벳어, 페르시아어 등 나머지 36개 언어로 된 책들이 나머지 108건(0.98%)을 구성하고 있다.

이 책들의 언어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관련 책이든 일본 관련 책이든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책들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이것은 다른 언어권의 독자들이 책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 관련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두 나라의 언어 혹은 영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본 관련 책들은 영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국어의 비중이 높은 한국 관련 책들보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책들의 장르 분포를 보면, 한국 관련 책은 비소설이 훨씬 많고, 일본 관련 책은 소설이 조금 더 많지만 비소설과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있다.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3,679건 중 소설은 1,042건(28.3%), 비소설은 2,637건(71.7%),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10,976건 중 소설은 6,166건(56.2%), 비소설은 4,810건(43.8%)이다.

4. 1997년 발행 책의 서지레코드 분석

4.1 소장도서관의 분포

여기에서는 1997년에 발행된 한국 관련 책과 일본 관련 책의 분포 및 주제, 언어 등 특성과 더불어 미국 내 도서관 소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가 일본 관련 책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데 비하여, 1997년 발행된 책들은 이들의 서지레코드 수가 가장 비슷하다. 이해 발행된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217건은 일본 관련 책 서지레코드 226건의 96.0%에 이른다. 따라서 1997년 발행 한국 관련 책 중 청소년용으로 잘못 분류된 서지레코드 5건을 제외한 212건과 일본 관련 책 서지레코드 226건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1997년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각각에 대하여 미국 내 소장도서관(Holdings)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 관련 책의 소장도서관 수가 한국 관련 책의 소장도서관 수의 3.8배 정도 많다. 다시 말하면 WorldCat에 수록된 1997년 발행된 한국과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 자체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책에 대한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는 많은 차이가 난다.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212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를 검토한 결과는 모두 5,691개 소장도서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 관련 책 한 권 당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가 평균 27개임을 의미한다.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226건에는 모두 23,221개의 소장도

서관이 등록되어 있고, 이것은 책 한 권당 소장도서관이 평균 103개임을 의미한다. 1997년에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총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어도, 일본 관련 책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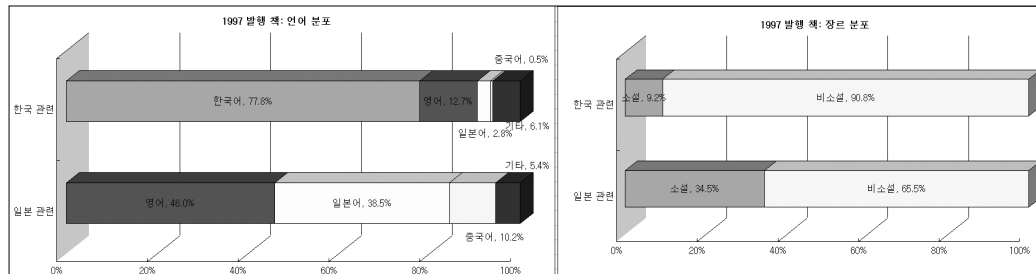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소장도서관의 수는 어쩌면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언어와 소장도서관의 관계를 살펴보겠지만 한국 관련 책이든 일본 관련 책이든 주로 영어로 된 몇 권의 책들만이 몇 십 개에서 몇 백 개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책들은 한두 개에서 많아야 열 개 안팎의 도서관들에서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관련 책 212권 가운데 34권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파악되지 않았다. 소장도서관이 있는 179권 중 47권(26.2%)은 단 한 개 도서관에만 소장이 되어 있고, 25권(13.9%)은 단 두 개의 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다.

일본 관련 책 226권 중 54권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파악되지 않았다.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있는 172권 중 65권(37.8%)은 단 한 개 도서관에만 소장이 되어 있고, 11권(6.4%)은 두 개의 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다.

4.2 언어 및 장르의 분포

<그림 3>의 왼쪽 도표는 1997년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언어 분포를, 오른쪽 도표는 장르 분포를 각각 보여준다. 우선 한국 관련 책은 절대 다수인 165권(77.8%)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로 된 책(27권, 12.7%)이 많고, 나머지(20권, 9.5%)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등의



〈그림 3〉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언어와 장르 분포: 1997년 발행

언어로 쓰인 책들이다. 일본 관련 책들은 절대 다수가 영어로 되어 있다(104권, 46.0%). 그 다음으로 일본어로 된 책이 많고(87권, 38.5%), 나머지(35권, 15.5%)가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등의 언어로 쓰인 책들이다. 한국 및 일본 관련 책들은 각각 개별 국가 언어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된 책들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이 책들의 장르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관련 책은 비소설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일본 관련 책도 비소설이 많지만 어느 정도 소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 관련 책은 전체 217권 가운데 소설이 20권(9.2%), 비소설이 197권(98.2%)이다. 일본 관련 책은 전체 226권 가운데 소설이 78권(34.5%), 비소설이 148권(65.5%)이다.

한편 한국 관련 책은 전기(Biography)의 비중이 높다. 한국 관련 책들 가운데 콘텐츠 패킷에서 전기로 분류된 것은 모두 56권(25.8%)으로 일본 관련 책 226권 가운데 14권(6.2%)만이 전기인 것에 비하여 네 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본격적 전기가 아니라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을 대상으로 한 단군, 광개토대왕, 계백장군 등 역사적 인물의 일화 중심의 스토리텔링 책들로 나타났다.

4.3 언어와 소장도서관

전체적으로 1997년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책들의 미국 내 소장도서관 현황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영어로 된 책들의 소장 비율이 높다. 한편 같은 영어로 되었어도 일본 관련 책들의 소장도서관 수가 한국 관련 책보다 현저히 많다. 〈표 1〉은 한국 및 일본 관련 책들 가운데 소장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열 권을 보여준다.

한국 관련 책 가운데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Helen Kim의 *The long season of rain*(New York: Fawcett Juniper)으로 모두 590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F. Carpenter의 *Tales of a Korean grandmother*(Rutland, Vt.: C.E. Tuttle Co.)로 모두 497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일본 관련 책 가운데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A. Golden의 *Memoirs of a geisha: A novel*(New York: Alfred A. Knopf)로서 모두 3,140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The long season of rain*의 소장도서관 수의 다섯 배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Sadako and the thousand paper cranes*의 스페인어 버전인 E. Coerr

〈표 1〉 한국 및 일본 관련 책 소장도서관 수의 순위

순위	한국 관련 책 서명	소장 도서관 수	일본 관련 책 서명	소장 도서관 수
1	Kim, H. (1997). <i>The long season of rain</i> . New York: Fawcett Juniper.	590	Golden, A. (1997). <i>Memoirs of a geisha: A novel</i> . New York: Alfred A. Knopf.	3,140
2	Carpenter, F. (1997). <i>Tales of a Korean grandmother</i> . Rutland, Vt: C. E. Tuttle Co.	497	Coerr, E., & Himler, R. (1997). <i>Sadako y las mil grullas de papel</i> . Madrid: Editorial Everest.	2,339
3	Schecter, E., & Otani, J. (1997). <i>Sim Chung and the river dragon: A folktale from Korea</i> . Milwaukee, WI: Gareth Stevens Pub.	453	Mochizuki, K., & Lee, D. (1997). <i>Passage to freedom: The Sugihara story</i> . New York: Lee & Low Books.	1,380
4	Nash, A.K. (1997). <i>North Korea</i> . New York: Chelsea House.	415	Coerr, E., & Himler, R. (1997). <i>Sadako and the thousand paper cranes</i> . Boston: Houghton Mifflin.	1,177
5	Grolier Educational (Firm). (1997). <i>Korea</i> . Danbury, Conn: Grolier Educational.	366	Heinrichs, A. (1997). <i>Japan</i> . New York: Children's Press.	1,017
6	Farley, C. J., & Huang, B. (1997). <i>Mr. Pak buys a story</i> . Morton Grove, Ill: Albert Whitman & Company.	353	Merrill, J., & Cooper, F. (1997). <i>The girl who loved caterpillars: A twelfth-century tale from Japan</i> . New York: Putnam & Grosset Group.	905
7	Jaffe, N., & Ma, W. (1997). <i>Older brother, younger brother: A Korean folktale</i> . New York: Puffin Books.	332	Baker, K. (1997). <i>The magic fan</i> . Orlando: Voyager.	839
8	Neuberger, A. E. (1997). <i>The girl-son</i> . Minneapolis: Carolrhoda.	330	Pirotta, S., & Mistry, N. (1997). <i>Turtle Bay</i> .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678
9	Stout, M. (1997). <i>One thousand chestnut trees</i> . London: Flamingo.	320	San, S. R. D., & Johnson, S. (1997). <i>The samurai's daughter: A Japanese legend</i> . New York: Puffin Books.	619
10	Choi, S.N., & Dugan, K. (1997). <i>Yunmi and Halmoni's trip</i> . Boston: Houghton MifflinCo.	298	Spivak, D., & Demi (1997). <i>Grass sandals: The travels of Basho</i> . New York: Atheneum Books for Young Readers.	587

와 R. Himler의 *Sadako y las mil grullas de papel*(Madrid: Editorial Everest)으로서 모두 2,339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관련 책들 가운데 영어로 된 책은 모두 27권이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모두 4,96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 책 한 권당 평균 184개 도서관이 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로 된 165권의 책 가운데 31권은 서지레코드는 WorldCat에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134권은 모두 640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 한 권당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는 평균 4.8개 즉 5개 정도이다.

영어로 된 일본 관련 책 104권 가운데 13권은 서지레코드는 있어도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을 제외한 91권은 미국 내에서 모두 22,012개 도서관이 소장하여, 한 권당 평균 242개 도서관이 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어로 된 책 87권 가운데 14권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이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73권이

221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한 권 당 소장도서관 수는 평균 3개이다.

동일하게 영어로 된 책이라 해도 일본 관련 책들은 한국 관련 책들보다 한 권당 평균 60여 개 이상 더 많은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어로 된 한국 관련 책들은 일본어로 된 일본 관련 책들보다 한 권당 1.8개 정도 더 많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 관련 책 중 단 한 개 도서관에만 소장된 47권(26.2%)은 모두 한국어로 된 책들이며, 두 개의 도서관에 소장된 25권(13.9%) 중 프랑스로 된 책 두 권, 중국어로 된 책 한 권을 제외하면 22권이 한국어로 된 책들이다. 일본 관련 책 중 단 한 개 도서관에만 소장된 65권(37.8%)이나 두 개 도서관에 소장된 11권(6.4%)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되어 한국 관련 책보다는 언어 분포가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어로 된 한국 관련 책, 일본어로 된 일본 관련 책, 혹은 그 밖의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책들은 미국 내 도서관에서 몇몇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미국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한국이나 일본에 관한 지식은 거의 전적으로 영어로 된 책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책들 가운데 영어로 된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는 704건, 영어로 된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는 7,833건으로 열한 배 정도 많다. 이들의 소장도서관 현황을 전부 살펴보진 못하였으나, 1997년 발행 책들의 언어와 소장도서관의 관계에서 추론해 보면, 아무래도 한국 관련 지식보다는 일본 관련 지식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 내에선 영어로 된 책들의 소장도서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영어로 된 책이라 해도 한국 관련 책보다 일본 관련 책들의 소장도서관이 현저히 많은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차후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4.4 실제 보유 도서관 현황

한국 관련 책이든 일본 관련 책이든 각 책의 서지레코드에 표시된 소장도서관 수와 실제로 그 책을 보유한 도서관 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WorldCat 서지레코드 상 소장도서관 수는 실제로 각 책을 몇 개의 도서관이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수의 도서관으로 구성된 도서관 컨소시엄이나 다수의 분관을 가진 도서관 시스템을 각각 한 개의 소장도서관으로 계수할 뿐, 그 컨소시엄 안에 몇 개의 도서관이 그 특정 책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개별 도서관이 몇 권의 카피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서지레코드 상에서 직접 알 수 없다.

이러한 소장도서관 수와 보유도서관 수 간의 격차를 입증하기 위한 예로서 앞서 미국내 소장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 관련 *The Long Season of Rain*과 일본 관련 책 *Memoirs of a geisha*, 두 책의 소장도서관들 가운데 서지레코드 앞부분에 나타나는 여섯 개 소장도서관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소장도서관을 순서대로 검색하였으나 일부는 목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접근불가인 경우도 있어 <표 2>에서는 접근 및 검색으로 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도서관들의

〈표 2〉 소장도서관 내 보유도서관 수의 현황 [cited 2013.6.29]

<i>The long season of rain</i>		<i>Memoirs of a geisha</i>	
소장도서관	보유도서관 수	소장도서관	보유도서관 수
(LINK) South Central Library System	3	(LINK) South Central Library System	45
Alachua County Library District	1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1
Alonquin County Public Library	6	Abilene Public Library	3
Allen County Public Library	1	Abraham Baldwin Agricultural University, Baldwin Library	1
Amherst Public Library	1	Acorn Public Library District	10
Andrews University	1	Adam Cardinal Maida Alumni Library	1

보유 현황을 보여준다.

*The Memoirs of a Geisha*는 일반 소설로 분류되기도 하고, 청소년용(Young Adult) 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소장 및 보유도서관의 범위가 더 넓을 가능성이 있었다. *Memoirs of a geisha*의 서지레코드에서 3,140개 소장도서관 리스트의 맨 위에 나오는 위스콘신 주 매디슨의 LINK: South Central Library System의 목록, 즉 LINKCat으로 들어가 보면 이 책은 Adams County Library, Baraboo Library, Black Earth Library 등 모두 45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Acorn Public Library District는 연결된 일리노이 주 SWAN 컨소시엄 목록에 따르면 모두 10개 도서관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밖에 개별 도서관으로는 Abilene Public Library가 3 카피를 보유하고 있었고,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Abraham Baldwin Agricultural University의 Baldwin Library 및 Adam Cardinal Maida Alumni Library는 각각 한 카피씩 이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The Long Season of Rain*도 LINK: South Central Library System이 소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LINKCat에 들어가 보면 실제 이 책을

보유한 도서관은 Lodi Library, Monona Library 등 세 곳이다. Alachua County Library District에서는 Headquarters Library 한 곳만이 이 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Alonquin County Public Library에서는 Alonquin Area Library--Main, Evanston Public Library--Main 등 모두 여섯 개 도서관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Allen County Public Library, Amherst Main Library와 Andrews University James White Library Information Gateway도 개별도서관으로서 각각 한 카피씩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지레코드 상에서 두 책에 동일하게 LINK: South Central Library System이 한 개의 소장도서관으로 간주되었으나, 실제 각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수는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각 책의 모든 소장도서관에 대하여 실제 보유도서관 현황까지 일일이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각각의 서지레코드에서 소장도서관이 개별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컨소시엄이나 특정 지역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종합목록을 나타내는 경우는 실제 보유도서관의 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 주제 분포

1997년에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책들의 주제 분포 현황은 두 가지 측면, 즉 WorldCat 검색 결과 리스트의 주제(Topic) 패킷을 사용한 주제 범주의 분포 및 각각의 서지레코드에서 추출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의 분포를 통해 주제를 검토하였다.

4.5.1 주제 패킷의 분포

한국 관련 책은 모두 126권이 열한 개 주제 패킷에 속하였다. 가장 많은 책이 언어, 어학 및 문학 범주(41권, 32.5%)에 속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역사와 보조학(37권, 29.4%), 인류학(28권, 22.2%)에 속하였다. 그밖에 예술과 건축학(6권, 4.8%), 정치학(5권, 4.0%) 범주에 속한 책들도 있었다. 음악, 체육, 사회학의 세 개 주제 범주엔 각각 2권씩, 교육학, 철학과 종교, 공학 및 기술의 세 개 주제범주에도 각각 한 권씩이 속하였다.

언어, 어학 및 문학 범주에 속한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견우와 직녀』, 『호랑이와 꽃감』 같은 옛날이야기책들이다. 『다산千字文: <아학편>에서 뽑은 우리 한자 1천자문』,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 『중학생을 위한 문학이야기』, *The Long Season of Rain*의 네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런 책들이다. 한국을 주제로 한 창작동화 같은 책도 없었다. 또한 역사 분야에도 『최영』, 『연개소문』, 『세종대왕』과 같이 특정한 출판사(홍문서관)에서 시리즈로 간행한 22권의 전기서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다양성은 크지 않았다.

일본 관련 책은 모두 161권이 열다섯 개 주

제 패킷에 속하였다. 가장 많은 책이 역사와 보조학(55권, 34.2%)에, 그 다음으로는 언어, 어학 및 문학(54권, 33.5%), 예술과 건축학(14권, 8.7%), 인류학(13권, 8.1%)에 속하였다. 그밖에는 사회학(5권, 3.1%), 교육학, 의학, 체육(각 4권, 2.5%)에 속한 책들이 있고, 도서관학, 철학과 종교 분야에는 각 2권씩, 생물학, 비즈니스와 경제학, 공연예술, 정부문서 분야에 각 1권씩이 속해 있었다.

일본 관련 언어, 어학 및 문학에 속한 책들은 *The Two Bullies*, *Uwagami* 등 같은 일본의 옛날이야기책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Yoshiko and the Foreigner*, *Turtle Bay*, *The Friends*, *Sadako*, *Sadako and the Thousand Paper Crane* 등과 같이 일본을 주제로 한 창작동화도 여럿 들어있다. 역사와 보조학 분야에서도 *Japan*이라는 동일한 표제를 가진, 일본 풍물, 문화, 사회, 역사를 다룬 책들이 11권 들어있다. 또한 *Colors of Japan*, *A Ticket to Japan*, *Japan, its People and Culture*, *Passage to Freedom: The Sugihara Story*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들어있고, *Kamakura Jidai*, *Azuchi Momoyama Jidai* 등 일본의 역사시대를 다룬 책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주제 범주만 보더라도 한국 관련 책과 일본 관련 책의 다양성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4.5.2 고유한 주제표목의 분포

다시 한국과 일본 관련 책들의 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WorldCat 각각의 서지레코드 오른쪽 상단 'More Like This'의 'Subjects'에서 제시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표목(LCSH)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각 서지레코드 당 최대 3개

까지의 주제표목을 보여주는데, 실제 일부 서지레코드에 3개 이상 주제표목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3개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The Long Season of Rain*의 서지레코드는 주제표목을 모두 7개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최초의 세 개, 즉 Korea(South)--Fiction, Family life--Korea (South)--Fiction, 그리고 Orphans--Fiction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최초 분석에서 한국 관련 책 217권의 주제표목은 모두 388개, 일본 관련 책 226권의 주제표목은 모두 518개였다. 이들을 중복 제거한 결과 한국 관련 책에 나타난 고유한 주제표목은 205개, 일본 관련 책에 나타난 고유한 주제표목은 317개였다. 이들을 다시 유사한 주제표목들끼리 범주화한 결과로 한국 관련 책은 196개의 주제표목 그룹, 일본 관련 책은 313개의 주제표목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관련 책의

고유한 주제표목 205개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Folklore--Korea--Juvenile literature로서 모두 52회, 그 다음으로 Folklore--Korea는 39회 나타났다. 그리고는 Tales--Korea가 11회, Korea--History--To 935--Juvenile literature가 10회 나타났다. 그밖에는 단 한 번씩만 나타난 주제표목들도 많다. Admirals--Korea--Biography--Juvenile literature, Aesthetics--Legends, Korea--Art--Social life and customs--Juvenile literature 등 101개 주제표목은 단 한 번씩만 나타났다.

일본 관련 책의 고유한 주제표목 317개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Comic books, strips, etc.--Japan으로 모두 29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Folklore--Japan이 17회, Japan--Fiction과 Japan--History--Juvenile literature가 각각 13회, Japan--Juvenile literature가 12회, Graphic novels, Graphic novels--Japan, Japan--History--Chronology가 각각 10회씩 나

〈표 3〉 가장 많이 나타난 주제표목 10개

한국관련 주제표목	회수	비율	일본 관련 주제표목	회수	비율
Folklore--Korea--Juvenile literature	52	13.4%	Comic books, strips, etc.--Japan	29	5.6%
Folklore--Korea	39	10.1%	Folklore--Japan	17	3.3%
Tales--Korea	11	2.8%	Japan--Fiction	13	2.5%
Korea--History--To 935--Juvenile literature	10	2.6%	Japan--History--Juvenile literature	13	2.5%
Fairy tales--Korea	9	2.3%	Japan--Juvenile literature	12	2.3%
Korea--History--Choson dynasty, 1392-1910--Juvenile literature	7	1.8%	Graphic novels--Japan	10	1.9%
Korea--History--Koryo period, 935-1392 --Juvenile literature	7	1.8%	Graphic novels	10	1.9%
Children's stories, Korean	6	1.5%	Japan--History--Chronology	10	1.9%
Korea--Kings and rulers--Biography --Juvenile literature	6	1.5%	Human geography--Japan--Juvenile literature	7	1.4%
Korea(South)--Juvenile literature	4	1.0%	Children's stories, Japanese	6	1.2%

타났다. 이들 가운데 Brothers and sisters--Fiction, Women mountaineers--Japan--Juvenile literature 등 162개의 주제표목은 단 한 번씩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 주제표목을 살펴본 결과는 여전히 한국 관련 자료들이 옛날이야기에 치우져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상위 세 개 표목이 모두 옛날이야기를 나타냈고, 다섯 번째 표목 역시 옛날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4.5.3 주제표목 그룹의 분포

〈표 4〉에 보는 바와 같이 한국 관련 책의 유사한 주제표목들을 범주화 하였을 때 Folklore--Korea 그룹(97개, 25.0%)이 가장 컸고, 그 안에 Folklore--Korea, Folklore--Korea--Juvenile literature, Folklore--Korea--Juvenile fiction, Folklore--Korean, Folklore--Korea--Children's nonfiction 등 모두 6개의 주제표목이 들어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명 Korea로 시작하는 주제표목 그룹(75개, 19.3%)으로서 Korea--Art--Social life and customs--Juvenile fiction, Korea--Biography 등의 주제표목 36개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큰 Tales--Korea 주

제표목 그룹(15개, 3.9%)에는 2개의 주제표목, Korean language 주제표목 그룹(12개, 3.1%)에는 8개의 주제표목, Fairy tales--Korea 그룹(11개, 2.8%)에는 2개의 주제표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Children's stories, Korean 그룹에는 6개(1.5%)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 관련 책들의 유사한 주제표목들을 범주화 하였을 때에는 국가명 Japan으로 시작하는 주제표목 그룹(119개, 24.0%)이 가장 컸고, 그 안에는 Japan--Civilization--Juvenile literature, Japan--Armed Forces--Burma--Juvenile fiction 등 모두 52개 주제표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Folklore--Japan(24개, 4.6%) 그룹에 Folklore--Japan--Drama 등 4개 주제표목이, Graphic novels 그룹(24개, 4.6%)에는 Graphic novels, Japanese--Young adult fiction 등 4개의 주제표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Human geography--Japan 주제표목 그룹(12개, 2.4%)에는 2개의 주제표목, Comic books, strips, etc. 그룹(11개, 2.1%)에는 6개의 주제표목, Tales--Japan(9개, 1.7%) 그룹에 2개의 주제표목, World War, 1939-1945--Atrocities(8개, 1.6%) 그룹에 8개의 주제표

〈표 4〉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주제표목 그룹

한국 관련 주제표목	총수	비율	일본 관련 주제표목	총수	비율
Folklore--Korea--Juvenile literature 등	97	25.0%	Japan--Armed Forces--Burma 등	119	24.0%
Korea--Art--Social life and customs--Juvenile fiction 등	75	19.3%	Folklore--Japan	24	4.6%
Tales--Korea 등	15	3.9%	Graphic novels 등	24	4.6%
Korean language 등	12	3.1%	Human geography--Japan 등	12	2.4%
Fairy tales--Korea 등	11	2.8%	Comic books, strips, etc. 등	11	2.1%
Children's stories, Korean	6	1.5%	Tales--Japan 등	9	1.7%
기타	172	44.3%	기타	320	41.6%
합계	388	100.0%	합계	518	100.0%

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

한국 관련 책의 주제표목은 그룹화 하였을 때에도,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옛날이야기와 관련된 주제표목들이 가장 큰 그룹을 구성하였다. 반면에 일본 관련 책은 일본이라는 국가명 아래 다양한 하부주제(subdivision)를 가진 표목들이 가장 큰 그룹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 첫 번째 주제표목의 분포

특정한 책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첫 번째 주제표목의 분포를 보면, 먼저 217권의 한국 관련 청소년 책들의 첫 번째 주제표목, 즉 217개의 주제표목 중에는 Folklore--Korea(민속--한국)이란 주제와 관련된 책이 가장 많다. Folklore--Korea, Folklore--Juvenile literature, Folklore--Korea--Juvenile literature, 및 Folklore--Korea--Children's nonfiction이라는 네 개의 주제표목 가운데 하나를 첫 번째 주제표목으로 가진 책은 모두 74권으로 전체의 34.2%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표목을 가진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옛날이야기 그림책들이며, 실제로 한국의 민속 그 자체를 주제로 다룬 책은 없다. 예를 들어 『견우직녀』, 『흑부리영감』, 『구렁덩덩 신선비』, 『반쪽이』 등과 같은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책 한 권으로 구성한 영유아 대상의 그림책들이 대부분이고, 초중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 이것은 한국 관련 청소년 책들이 주제적 다양성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대상 독자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속(Folklore)”이란 “사람의 거울”이며, 넓게는 일상적인 사람의 누적된 지식과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범위에는 미신, 게임, 노래, 자장가와 민요, 무용의식, 의술, 옛날이야기, 속담, 잠언, 우화, 신화, 전설, 영웅담, 서사시 등 매우 다양한 인간 문화와 전승된 지식이 들어있다(Sutherland & Arbuthnot 1986, 163). 실제로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관련 민속 주제의 책들은 단지 옛날이야기만으로, 민속의 범주 내에서도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책들은 또한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고, 미국 내 한 개에서 두어 개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영어로 발행된 네 권의 책은 많은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었다. 앞서 <표 1>에서 본 것처럼 *Sim Chung and the River Dragon: A Folktale from Korea*는 453개 도서관, *Mr. Pak Buys a Story*는 353개 도서관, *Older Brother, Younger Brother: A Korean Folktale*은 352개 도서관, 그리고 <표 1>에는 없는 K. Kifer, D. Solar와 C. Barnard의 *Fountain of Youth*는 128개 도서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들 중 주목할 책은 *Sim Chung and the River Dragon*으로 1997년 발행 한국 관련 청소년 책 가운데 미국 내 도서관에 세 번째로 많이 소장되어 있다. 같은 해 발행된 한국어판 『효녀 심청』(삼성출판사)은 단 7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엄청난 숫자이다. 그런데 이 책의 서지레코드를 보면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아버지가 눈이 먼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끔찍한 (강의) 용과 결혼하기로 약속한다(In order to obtain a cure for her father's blindness, a loving young girl agrees to marry a terrifying dragon)”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Ellen Schecter와 June Otani는 각각 영미계와 일본계 작가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옛날이야기가 다른 나라의 작가들에 의하여 이처럼 왜곡되고 변형된 내용으로 저술됨에 따라 고유한 문화콘텐츠가 그 원형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책이 많은 도서관에 소장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에 관한 지식 자체가 왜곡된 상태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의 한국 관련 책이 얼마나 많은 도서관에 소장되는가, 그로 인하여 한국과 관련된 어떤 수준과 내용의 지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 관련 책 226권의 첫 번째 주제표목 224개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Comic books, strips, etc.--Japan이다. 이 주제표목은 모두 18회 나타났으나, 각각 1회씩 나타난 Comic books, strips, etc.--Japan--Juvenile fiction, Comic books, strips, etc.--Japan--Translation into Japanese까지 합치면 모두 20권(8.9%)의 책이 이와 관련된 주제표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만화책인데, Graphic novels, Graphic novels--Japan, Graphic novels, Japanese--Young adult fiction과 같은 주제표목을 첫 번째로 가진 책 12권(5.4%)과 합치면 그 비중이 더욱 늘어난다. 한 마디로 일본 관련 책들은 만화책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관련 책들 중 Folklore--Japan(민속--일본)과 관련된 첫 번째 주제표목을 가진 책은 모두 11권(4.9%)이다. 이들은 Folklore--Japan, Folklore--Japan--Drama, Folklore--Japan--Juvenile literature 등을 포함하였고, 그 가운데 5권이 영어로 된 책이다. 일본 관련 책들에서 옛

날이야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및 일본 관련 책들의 첫 번째 주제표목의 분포, 3개까지의 주제표목의 개별 분포 및 그룹 분포 전체를 볼 때, 한국 관련 책들은 일본 관련 책들에 비하여 주제적 다양성이 매우 떨어지고, 주제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 관련 책은 옛날이야기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사한 주제표목을 묶은 그룹의 수도 일본 관련 책들에 비하여 적어, 다양성이 적었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WorldCat에 수록된 한국과 일본 관련 청소년 책들의 서지레코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orldCat에 수록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발행된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의 서지레코드 총수는 각각 3,963건, 12,586건으로 일본 관련 책이 세 배 이상 많다. 1990년대에는 비교적 한국 관련 책과 일본 관련 책의 수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점점 격차가 심해지며, 특히 최근에 발행된 책일수록 일본 관련 책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이 책들 가운데 한국 관련 책은 한국어로 된 책이 가장 많고, 일본 관련 책은 영어로 된 책이 가장 많으며,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책들은 그 수가 매우 적다. 한국 관련 책은 비소설이 훨씬 더 많고, 일본 관련 책은 소설이 더 많지만 비소설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진다.

셋째, 한국 및 일본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

가 가장 비슷했던 1997년 책의 분석 결과, 한국 관련 책 212권의 한 권 당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는 평균 27개, 일본 관련 책 226권의 한 권당 소장도서관은 평균 103개로 소장도서관 수의 격차가 매우 컸고, 각 소장도서관 내 실제 보유 도서관 수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 책들 가운데 한국 관련 책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 책이고, 일본 관련 책은 영어로 된 책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 및 일본 관련 책 모두 영어로 된 책은 미국 내 소장도서관 수가 많았지만, 한국어나 일본어 책은 소장 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국 관련 책은 비소설이 절대적으로 많고 전기의 비중이 높고, 일본 관련 책도 비소설이 많지만 어느 정도 소설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섯째, 이 책들의 첫 번째 주제표목, 세 개까지의 주제표목의 개별 분포 및 그룹 분포는 한국 관련 책들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옛날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화 중심 스토리텔링식 전기에 편중되어 일본 관련 책들에 비하여 주제 다양성이 매우 떨어지며 심한 주제 편중성을 보여주었다.

상기한 결과는 한국 관련 청소년 책들에 대하여 매우 단순한 사실을 보여준다. WorldCat 수록 서지레코드로 표현된 전 세계 도서관 장서에서 일본 관련 책들에 비해 한국 관련 책들은 현저히 수도 적고, 미국 내 현황만 보아도 소장 및 보유 도서관 수도 적으며, 그나마 있는 책들도 언어, 장르 및 주제 편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WorldCat이 차세대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발행연도, 언어, 장르, 주제 등 패킷으로 검색결과와 범주화 기능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997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책만을 분석한 결과를 모든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이전 연구(2012)에서 발행연도와 매체를 불문하고 한국 및 일본 관련 청소년 자료 전체에서 나타난 특성, 즉 한국 관련 지식자원의 낮은 소장 비율, 장르와 주제의 편향성, 언어의 제한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도서관에는 한국에 관하여 읽을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폭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영어로 된 소설, 비소설 책들이 균형 있게 많은 도서관에 분포되어 있는 일본 관련 책들에 비하여, 한국 관련 청소년 책은 지식 확산의 가능성 면에서 크게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관련 청소년 책이라는 물리적 지식자원의 현재 분포 격차가 이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 그에 따른 지식 확산의 격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뿐이지 아직은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는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아울러 <그림 1>에 보는 것처럼 WorldCat에 절대적으로 한국 관련 책의 서지레코드 수가 적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2000년대 이후 발행되는 한국과 일본 관련 책들의 서지레코드 분포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 및 상관관계의 분석에 이르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가진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증적이며 체계적인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들의 소장도서관의 관종별 분포 및 그에 따른 잠재 이용자층

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분포 패턴이 개별 도서관들의 지속적, 체계적 장서개발의 결과인지, 혹은 기증과 같은 특정 시

점의 일회적 행위에 따른 결과인지, 자료 입수의 목적, 의도, 경위 등도 규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정현. 2011.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8(3): 141-162.
- [2] 김정현. 2010.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47-169.
- [3] 김정현, 문지현. 2009.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49-68.
- [4] 문지현, 김정현. 2011. 國立國會圖書館 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47-267.
- [5] 윤정욱. 2012.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3-141.
- [6] OCLC. 2013a. "A Global Library Resource." [online]. [cited 2013.5.26].
 <<http://www.oclc.org/en-asiapacific/worldcat/catalog.html>>.
- [7] OCLC. 2013b. "OCLC WorldCat." [online]. [cited 2013.6.8].
 <<http://www.oclc.org/en-asiapacific/worldcat.html>>.
- [8] OCLC. 2013c. "WorldCat database reaches 2 billion holdings." [online]. [cited 2013.6.8].
 <<http://www.oclc.org/en-asiapacific/news/releases/2013/201322dublin.html>>.
- [9] Sutherland, Zena, & Arbuthnot, May Hill. 1986. *Children and Books*. 7th ed.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Jeong-Hyen.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y OPACs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3): 141-162.

- [2] Kim, Jeong-Hyen. 2010.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47-169.
- [3] Kim, Jeong-Hyen, & Moon, Ji-Hyun.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49-68.
- [4] Moon, Ji-Hyun, & Kim, Jeong-Hyen. 2011.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47-267.
- [5] Yoon, Cheong-Ok. 2012.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3-141.